

‘월드컵’ 2027년 한국 개최... “광주서 대회 치러지길”

라이언, e스포츠대회 로드맵 발표
결승전 전세계 누적시청자 1억명
개최도시 홍보·경제적효과 ‘막대’
“지역 출신 선수 경기 직관했으면”
광주시 “꿀잼도시 위해 유치 총력”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국제대회인 ‘월드챔피언십(월드컵)’이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규모 메이저대회’를 애타게 기다리던 지역민들은 “광주에서 꼭 경기를 보고 싶다”고 소망했다. e스포츠전문가들은 광주가 ‘꿀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월드컵 유치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롤 게임 운영사 라이엇게임즈는 9일 ‘국제e스포츠대회 개최 로드맵’을 발표, 2027년 월드컵을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최도시는 추후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년 퍼스트 스탠드 △2026년 미드시즌인비테셔널(MSI) 등 기타 국제대회의 한국 일정도 전했다.

월드컵은 시청자 수 기준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로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서울 고척돔서 열린 한국팀 T1과 중국팀 웨이보게이밍의 ‘2023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전세계 640만명(누적 1억명)이 동시 시청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2014년·2018년·2023년 등 세 번 개최됐다.

개최 도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광주시 아시아e스포츠산업센터의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SNS에서는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파트너 도시’에 대한 검색률이 평소보다 54%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롤 MSI 부산’에서는 광안대교·마린시티 등 랜드마크를 담은 ‘MSI 티저 영상’이 도합 300만회에 가까운 재생 횟수를 보이며 지역 홍보를 독특히 했다.

또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로 홍보·숙박·쇼핑 등 직·간접 경제 효과도 크다. 지난 2018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월드컵 4강전’에서는 경기장 2만석이 모두 조기매진됐고, 광주시는 종합적으로 약 400억원에 이르는 효과를 거뒀다.

지역 e스포츠 팬과 산업 관계자들은 월드컵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빛대며 지역 유치를 간절히 소망했다.

지난 2018년 광주여대 월드컵 현장에 있었다는 시민 문현열(31)씨는 “짜릿했던 그날의 순간이 생생하다.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지난 대회(2023년)에서 불발돼 아쉬웠다”며 “특히 우승권 팀에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많다. e스포츠경기장 등 인프라가 좋은 도시인 만큼 광주시가 월드컵 유치를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 2022년 ‘2023월드컵 경기 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교통·관광 수용력 등 복합적인 이유로 아쉽게 최종 탈락, 부산에 8강·4강전을 모두 헌납했다.

지난해 월드컵 경기를 영화관에서 관람한 이상균(26)씨는 “대형 스크린 밑에서 응원을 해보니 현장감이 너무 좋았다. 직접 관람하는 것은 얼마나 짜릿할 지 궁금하다”며 “광주 북구민 T1 오너 문현준 선수의 오랜 팬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광주에서 경기가 열려 오너 선수를 꼭 고향에서 보고싶다”고 소망했다.

정연철 호남대 e스포츠학과장은 “e스포츠는 아시아게임 정식종목 채택 등 전세계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가 됐다. 그중 월드컵은 단연 최고의 메이저 대회”라며 “광주에서(월드컵이) 열리게 된다면 ‘광주e스포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무등산·광주공원·비엔날레 등 아시아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 또한 가능하다. 저투자 고효율의 표본인 만큼 유치를 적극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70일 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과 김성환 홍보위원 및 봉사원, 대학RCY 단원 등이 9일 광주시청 열린청사에서 70일간의 헌혈 릴레이 선포식을 갖고 ‘1초의 핑그림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 바로 헌혈입니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나건호 기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폭풍전야’... 경호처장 체포 가능성도

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 뒤 집행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극비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9일·10일, 이번 주말쯤 집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조본이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차장 등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을 저지한 박 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박 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0일, 김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한 다음,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10일과 11일까지 3차 출석을 통보한 박 처장과 김 차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호처장이 없는 틈을 타 주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지휘부를 먼저 무력화 한 뒤 체포에 나서는 방법이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 투입을 검토 중이다. 1차 집행 때 경호처 직원·군인 200여 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공대 투입은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특공대를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신 형사기동대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경호처 ‘차벽’을 치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시스

희망2025나눔캠페인
광주사랑의열매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사랑의열매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하비는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하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